



대교협 소식

☪ 2000년 대교협 임시 총회 (6월 29일~7월 1일)에서 통과된 결의문 내용

1. 민족적 염원인 남북 통일은 먼저 남북 교육과 문화의 교류를 매개로 하여 출발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 남북의 고등 교육 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첨단 학문의 육성이 국가 기능 강화의 원동력이 됨을 현시적으로 보여줄 때 가속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2. 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 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자율 협력 기구로서 고등 교육 행정 위임 기관임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을 18년이나 지연시켜 온 것은 고등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이므로 교육부는 대학교육협의회와 본래 기능을 보장하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학 교육 개혁 정책은 고등 교육 기관으로 하여금 학술 수준의 첨단화를 도모하고, 우수한 민족 정신의 충분한 창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고등 교육의 구조 조정은 단순한 예산 절감이나 기구 축소의 방편이 아닌 고등 교육의 고유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되기를 촉구한다.

4. 대학 교육의 국제적 질 관리를 위한 대학 재정의 지속적 확충과 재정 배분 정책의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5. 현행의 대학 평가 체제는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 볼 때, 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일원화되어야 마땅하고, 그 시행 절차도 대학의 현장 요구와 행정·재정적 능력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교육부는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대학교육협의회와 유기적 협조 하에 수립하여야 한다.
6.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연구 정책을 전담하는 고등 교육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 대학교육협의회 내의 고등교육연구소를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 "200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 요강" 발표

대교협은 지난 4일 '200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00명 이상 모집 대학은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등 8개교 ▶80~100명 모집 대학은 전남대 등 9개교 ▶60~80명 모집 대학은 경기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18개교 ▶40~60명 모집 대학은 서울대 등 31개교 ▶20~40명 모집 대학은 서강대, 서울여대 등 38개교로 전년도보다 215명 많은 5,808명을 뽑는다.

응시 자격은 교포, 해외 근무 공무원, 상사 주재원 자녀 등 교육부가 제시한 일반적인 자격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학은 강릉대, 부산대 등 41개 대학이다. 또 학교 자체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은 고려대와 서강대, 한양대, 서울대 등 44개 대학으로 2000학년도에 비해 20곳이 늘었다.

서울대의 경우는 교포 자녀 등의 자격 기준을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상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로 변경했고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는 '외국 소재 고교



교육과정 1년을 포함해 2년 이상 외국 중·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한했다.

응시 자격을 귀순 북한 동포, 해외 현지 법인·자영업자의 자녀, 해외 유학·연수자의 자녀 등으로 일반적 자격 기준 보다 확대하는 대학은 경상대, 건국대, 서울대, 이화여대, 포항공대 등 106개교이다. 이 가운데 이중국적자를 허용하는 대학은 충남대, 국민대, 단국대, 덕성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을지의대, 홍익대 등 8개 대학이다.

전형 방법은 대학마다 논술과 면접, 필답, 서류 전형 등을 활용한다. 전형 일자는 9월 28일부터 2001년 1월 30일까지이며, 구체적인 모집 요강은 대학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2000학년도 2학기

수시 모집 요강 발표

대불대, 순천향대, 한동대, 광주대 등 10개 대학이 2000학년도 입시에서 생긴 결원을 메우기 위해 2학기 수시 모집을 실시한다. 대학별 모집 인원은 ▶광신대 22명 ▶광주여대 27명 ▶남부대 7명 ▶대불대 450명 ▶순천향대 79명 ▶에원대 46명 ▶

한동대 104명 ▶한서대 49명 ▶한일장신대 111명 ▶광주대 165명 등 1,060명이다.

대학별 전형 방법은 학생부만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광주여대, 남부대, 대불대, 한서대, 한일장신대(종교음악과 제외) 등 5개교,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순천향대, 학생부·수능·면접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광신대, 학생부·면접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에원대 등이다.

'99학문 분야 평가

사후 간담회 개최

대학교협은 '99학문 분야 사후 간담회를 8월 7일(월) 63빌딩 별관 3층에서 개최했다. '99학문 분야 평가 위원(건축 공학 분야 18명, 법학 분야 2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99학문 분야의 성과, '99학문 분야의 문제점, '99학문 분야 평가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토론했다.

2001 대학입학정보박람회 기획 운영·실무 위원 및 준비 위원 위촉과 제 1차 회의 개최

대학교협은 2001 대학입학정보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참가 대학과 대학교협 등의 관계 전

문가로 구성된 기획 운영·실무위원을 위촉하고 아울러 제 1차 기획 운영·실무 위원회(준비위원회) 회의를 8. 9(수), 8. 10(목)에 사학연금회관 20층에서 각각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사업 계획(안) 심의 및 관련 현안 사항 협의가 있었다.

2000년도 학문 분야 자체 평가 연구 위원 워크숍 개최

대학교협은 2000년도 평가 대상인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 및 재료공학 분야의 해당 대학 자체 평가 연구 위원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 내용은 학문 분야의 기본 정책과 목적, 각 학문 분야의 평가 편람 개발 방향에 대한 안내 그리고 질의·응답 등이었다.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은 2000년 8월 17일, 재료공학은 2000년 8월 18일 오전 10시 여의도 63빌딩 별관 3층에서 각각 개최했다.

2001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집계 발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윤형원 충남대 총장)는 2000년 8월 24일 전국 191개 4년제 대학(대학 161개교, 교육대학 11개

교, 산업대학 19개교) 중 수시 모집(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 전형 제외)을 실시하는 48개 대학(국·공립 대학 11개교, 사립대학 36개교, 산업대학 1개교)의 "2001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집계·분석하여 발표했다.

2001학년도 수시 모집은 정시, 특차 모집 기간 이전인 9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을 실시하는 것으로 수시 모집을 실시하는 48개교 중 대부분의 대학이 특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2개 대학(가톨릭대, 숙명여대)만이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을 병행하여 선발한다.

모집 인원은 48개교 13,499명(정원내 12,880명, 정원의 619명)을 선발하는데, 이는 작년과

비교하여 19개교 5,367명(정원내 4,960명, 정원의 407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이를 설립별로 보면 국·공립 대학이 11개교에서 3,140명, 사립대학이 36개교에서 2,227명을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를 참조하면 된다.

대학 교직원 연수

☪ 대학 인문·사회계 교수

워크숍 및 비서 직무 수행

향상 과정 워크숍 개최

대교협은 대학 교직원 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7월 3일(월)~7월 5일(수)까지 대학 인문계 교수 워크숍을, 7월 5일(수)~7월 7일(금)까지 대학 사회계 교수 워크숍을 오색그린야드호텔(강원도 설악산 소재)에서 개최했다. 또 7월 5일(수)~7월 7일(금)까지 대학 비서 직무 수행 향상 과정(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이 2박 3일 동안 이루어졌다.

인문계 교수 워크숍의 내용은 대학 문화와 교수의 역할, 대학의 교수 설계 기법과 멀티미디어 활용, 대학 학부제와 교육과정 운영, 인문학의 발전 방향과 과제,

지식 기반 사회의 대학 변화 패러다임과 교육 개혁 등이며, 사회계 교수 워크숍의 내용은 지식 기반 사회의 대학 변화 패러다임과 교육 개혁, 대학 문화와 교수의 리더십, 대학의 교수 설계 기법과 강의법, 대학 교육 과정 개혁의 과제, 대학 연구비의 확보 전략 탐색 등이었으며, 대학 비서 직무 수행 향상 과정은 교육 기관 비서의 책임과 역할, 비서 직무, English Writing, 정보관리, 인터넷 활용 기법, 인간 관계와 만남의 심리,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이었다. 특히 대학 비서 직무 수행 향상 과정은 업무 수행 능력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대학 총장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요망된다.

☪ 대학 이·공학 및 의학계

교수 워크숍 개최

대교협은 대학 교직원 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7월 10일(월)~7월 12일(수)까지 대학 이학계, 의학계 교수 워크숍을, 7월 12일(수)~7월 14일(금)까지 대학 공학계 교수 워크숍을 오색그린야드호텔(강원도 설악산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학계 교수 워크숍의 내용은 대학 이학 교육의 개선 방향과 과제, 대학 기초과학 연구의 활성화 방향과 전략, 대학의 교수-학습 전략과 수업 평가, 지식 기반 사회의 대학 변화 패러다임과 교육 개혁, 대학 조직의 특성과 교수의 리더십 등이며, 의학계 교수 워크숍의 내용은 21세기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전망과 과제,



대학 의학 연구의 활성화 전략과 연구 계획서 작성 기법, 대학의 교수-학습 전략과 수업 평가, 지식 기반 사회의 대학 변화 패러다임과 교육 개혁, 대학 조직의 특성과 교수의 리더십 등이었다.

공학계 교수 워크숍의 내용은 대학 조직의 특성과 교수의 리더십, 대학에서의 벤처 창업 전망과 과제, 일과 직업 세계 그리고 대학생 진로 지도, 지식 기반 사회의 대학 변화 패러다임과 교육 개혁, 대학 공학 연구의 활성화 전략과 연구 계획서 작성 기법, 대학 수업의 설계와 강의 운영 효율화 전략 등이었다.

㉸ 제 4차 패키지

프로그램 실시

대학교협은 대학 교직원 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7월 19일(수)~7월 21일(금)까지 제 4차 패키지 프로그램을 한국증권연수원(충남 아산시 도고면 소재)에서 운영했다.

개설 과정으로는 대학 교육과정 혁신 과정, 대학 사이버 강좌 개발 과정, 대학 시설 설계 및 건축 실무 과정이었다.

대학 교육과정 혁신 과정 내용은 지식 기반 사회의 도래와 대학 교육과정 개편 동향, 대학 교

육과정 개혁의 방향, 대학의 학부제와 교육과정 운영, 대학 교육과정의 개발 전략과 선진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 개혁 동향, 대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사례 워크숍 등이었고, 대학 사이버 강좌 개발 과정 내용은 사이버 강좌의 유형, 사례 및 시사점, 사이버 강좌 개발 프로세스와 원칙 및 기법, 주요 웹 기술의 구현과 적용 사례, 사이버 강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원칙 및 향후 과제 토의 등이었으며, 대학 시설 설계 및 건축 실무 과정의 내용은 21세기 대학의 패러다임 변화와 시설 관리직의 위상, 대학 교육 시설 건축의 절차 및 관련 법규, 대학 시설 건축의 설계 및 시공 감리 일반, 대학 시설 건축 시 운영되는 설계 및 시공 실무 워크숍, 건설 전반에 걸친 세계적인 동향과 교육 시설에의 접목 등이었다.

이번 과정에서는 참가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와 정보 교환도 이루어졌다.

㉸ 제 5차 패키지

프로그램 개최

대학교협은 대학 교직원 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8월 9일(수)~8월 11일(금)까지 2박 3일 동안

한국증권연수원(충남 아산시 도고면 소재)에서 제 5차 패키지 프로그램(교수 기법 습득 과정, 대학 회계 관리 실무 과정)을 개최했다.

교수 기법 습득 내용은 21세기 대학의 패러다임 변화와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방향, 수업 계획 설계 모형과 수업 운영 기법, 대학 교수법의 추이와 강의 준비의 실제, 대학의 교수 설계 멀티미디어 활용, 학업 성취도 평가와 대학 수업 평가 방법, 수업 매체 개발·활용과 프리젠테이션 등으로서 대학 교수(특히 신입 교수)의 교육 능력 향상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대학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다. 대학 회계 관리 실무 과정 내용은 대학 회계·경리의 기본 원리 및 실제 응용과 발전 방향, 대학 회계 및 관련 규정 및 대학 회계 재무제표의 주요 개정 과목 해설, 특별 회계 해설 및 결산 실무와 대학의 결산 회계 및 세무 회계, 대학의 회계 감사 등으로 참가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와 정보 교환이 이루어졌다.

☪ 제 6차 패키지

프로그램 실시

대교협은 대학 교직원 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8월 16일(수)~8월 18일(금)까지 2박 3일 동안 한국증권연수원(충남 아산시 도고면 소재)에서 제 6차 패키지 프로그램(대학 기금 조성·운영 전략 과정, 대학 홍보 전략 실천 과정, 목표 관리에 의한 업적 평가제 도입 과정)을 운영했다.

대학 기금 조성·운영 전략 과정 내용은 21세기 대학의 패러다임 변화와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방향, 대학의 기금 조성과 마케팅 컨셉트의 도입, 대학 기금 조성의 모델과 전략, 국내외 대학의 기금 조성 사례 워크숍, 대학의 기금 조성·운영 방향 워크숍이었으며, 대학 홍보 전략 실천 과정 내용은 효과적인 대학 홍보

의 이론적 토대와 PR사례 분석, 대학 홍보의 차별화 전략 워크숍, 홍보 수행 과정의 이론적 접근, 대학 홍보 전략 개발 및 프로그램 기획 워크숍이었다. 목표 관리에 의한 업적 평가제 도입 과정 내용은 MBO에 의한 업적 평가의 절차와 방법, 목표 설정 실습 워크숍, 목표 관리에 의한 업적 평가 제도 초안 작성 워크숍 등으로 되어 있어 참가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와 정보 교환이 이루어졌다.

☪ 제 7차 패키지

프로그램 연수 개최

대교협은 대학 교직원 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8월 23일(수)~8월 25일(금)까지 제 7차 패키지 프로그램을 한국증권연수원(충남

아산시 도고면 소재)에서 운영했다. 개설 과정은 신입생 확보 및 등록생 유지 관리 과정, 대학 등록금 책정 실무 과정 등이었다.

신입생 확보 및 등록생 유지 관리 과정 내용은 교육 수요자 중심 시대에서 대학 등록생 관리의 과제와 전략, 21세기 대학의 패러다임 변화와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방향, 대학의 등록 관리 전략의 이해와 실제, 2002년 새 대학 입시 제도의 과제, 대학 신입생 확보 및 등록생 유지 전략 워크숍 등이었다.

이번 과정에서는 참가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와 정보 교환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당초 계획되었던 대학 시설 및 실험실 안전 관리 과정은 9. 20(수)~9. 22(금)으로 변경됐다.

대교협 발간 자료

☪ "대학 입학 특별 전형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연구보고 RR 제 99-11-188호)

대교협은 최근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대학 입학 특별 전형에 관한 연구' (연구자: 대교협 사무총장 이현청 외 7명)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연구는 대학 입학 특별 전형

의 개념과 의미를 살펴보고 현행 특별 전형 실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과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특별 전형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별 전형 활성화 방안의 핵심적인 정책 사항으로 대교협 중심의 특별

전형 인증제의 도입과 특기·적성 교육과의 연계 방안, 특별 전형 제도적 관리 및 입학생의 사후 평가를 제안하고 있다.



한국 사회 봉사 협의회

☾ 대학생 해외 봉사단 파견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는 대학생들의 국제 경험과 봉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화 교류를 통한 국제 친선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하여 여름 방학 중에 중국·러시아·베트남·필리핀·몽골 등 5개국에 104개 대학 200여명의 대학생 해외 봉사단을 파견했다.

1차로 중국팀이 7. 11(화) 연변으로 출발하였으며, 17일에는 베트남·필리핀·몽골팀이, 18일에는 러시아팀이 출발했다.

한국대학사회봉사단에서는 각 대학 의료 봉사단이 함께 파견되어 해당 인근 지역에 대한 의료 봉사도 같이 실시했으며, 대학생들은 컴퓨터, 예·체능 등의 교육 봉사를 비롯하여 농사 보조, 환경 정비, 문화 및 대학생

교류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3주 동안 실시했다.

☾ 2000년도 대학생 자원 봉사 활동 지원금 전달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는 대학생 자원 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97년부터 삼성사회봉사단과 공동으로 참신하고 진취적인 대학생 자원 봉사 프로그램을 공모·지원하고 있으며, 2000년도 76개 대학, 140개 대학생 자원 봉사 동아리에 대한 활동 지원금 1억 4백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2000. 7. 6(목) 서울 삼성 국제 회의실에서 대사협과 삼성 임원진, 교육부 관계관, 그리고 전국 300여 명의 동아리 대표 및 지도 교수가 참여하여 개최되었으며, 지원금은 7월 중순

각 대학 사회 봉사 담당 부서로 교부했다.

☾ 대학생 해외 봉사단 귀국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대사협)에서 실시한 2000년도 한국 대학생 해외 봉사단(5개국, 5개 팀) 중 중국 해외 봉사단 41명(단장 강원대 나정원 교수)이 7월 31일(월) 3주간의 봉사 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했다.

중국 해외 봉사단에는 인하대학교 의료 봉사팀(팀장 최지호 교수)도 포함되어 있으며, 연길 지역 춘흥·고성 소학교 등 5개 소학교에서 지역 주민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컴퓨터 등 교육 봉사, 태권도·풍물 등 한국 문화 소개, 현지 가정 방문 등 현장 학습, 현지 대학생과의 교류 등의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